

“만경강유역 마한역사문화벨트 추진해야”

완주군, 완주 상운리 유적·배매산성·삼례토성 등 마한 주요 유적 분포

전북의 뿌리인 중요 역사지원을 복원해 주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만경강 유역 마한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만경강은 고대 선진문물의 유입 통로로 국내(韓) 문화 성립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친 지리적 요인으로 주변에 주요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실제로 완주 상운리 유적은 전북에서 유일하게 보존된 대규모 마한 고분군(群)으로 유명하고, 완주 배매산성과 삼례토성은 선진문물 통로였던 만경강 유역을 통제하기 위한 마한·백제 관방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용진을 상운리와 봉등을 둔산리, 삼례읍 삼례리 일원을 만경강유역 마한역사문화벨트로 묶어 고분 복원과 유적탐방로 설치, 전통정원 조성, 체험관과 편의시설 건립 등에 나서야 한다고 요일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완주군은 마한의 상징적 공간과 경관의 재창조는 물론 지역 역사문화를 새롭게 조명해 체계적 정비의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발전과 관광자원화를 통해 국가적 과제인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한(馬韓)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뿌리가 되는 문화로 백제와 신라, 가야에 비해 연구와 정비가 미흡해 전북 등 낙후지역의 문화권 육성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 상상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매산성 중심부 층위 및 주공흔적.

특히, 이들 지역의 주변에는 2,000세대의 복합형정터전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6,000세대의 삼봉지구 건설, 연간 40만 명이 찾는 완주 로컬푸드매장, 15만 명이 방문하는 삼례문화예술촌과 비비정 열차 등이 함께 해 상운리구와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역사문화 정비가 더욱 시급하다는 논리이다.

완주군은 이를 위해 전북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국립완주문화재

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초기 철기와 마한시대 등 역사 복원을 위한 조사연구 협력과 공동사업 개발 등에 나서기로 하는 등 사력을 다하고 있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만경강유역 마한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은 국가 균형발전과 그린뉴딜 등 국가 정책사업과 부합한다”며 “중요문화재 정비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접근이 요청되는 만큼 대선 공약화 추진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뉴미디어 아트 숲’ 특별 전시 업무협약

전북도문화관광재단-한국소리문화의전당, 체결... 내달 9일부터 개막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 대표이사 이기전)은 지난 19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하 전당, 대표 서현석)과 9월 9일부터 개막하는 ‘뉴미디어 아트 숲’ 특별 전시에 관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본 전시는 전당이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며 기획한 특별전시 중 4번째 섹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 협약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주관하는 특별전시의 성공적인 개최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전북은행, 한국에세나협회, 한국문화예술회관협회 등이 후원한다.

‘뉴미디어 아트 숲’ 특별전시는 재단이 주도하고자 하는 ‘기부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회적·인도적 차원에서 전북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전북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재단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로 치유를 위해 ‘자연’을 주제로 선택했다. 또한 눈으로만 체험하는 아날로그 전시가 아닌 실감형·몰입형 미디어 기술을 구현한 초대형 영상작품으로 자연의 희로애락 스토리를 연출할 예정이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20주년을 함께 맞이하는 이번 특별전시는 전북도민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뉴미디어 아트 전시로 치유와 회복을 꿈꾸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현석 대표는 “협약을 통해 재단과 전당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기획본부 기획홍보팀(063-230-7413)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장수군, 삼고리고분군 7호분 발굴성과 공개

학술자문회의·전북도 기념물 지정 위한 현장조사 진행

장수군이 지난 20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과 함께 조사하고 있는 장수 삼고리고분군 7호분에 대한 학술자문회의와 전북도 기념물 지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조사에는 이재운 교수(전북도문화재위원장,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장), 광장근 교수(전북도 문화재위원), 조대연 교수(전북도 문화재위원) 등 3명이 참석하여 문화재에 대한 역사성 및 가치규명을 판단했다.

장수 삼고리고분군은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산76 일원에서 故한홍석님의 결정적인 제보로 알려진 장수로 1995년 1차 발굴조사가 시작된 이후 23년 만인 2018년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비 지원사업에 2회 연속 선정돼 지금까지도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

으며 장수지역의 가야역사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중요한 유적이다.

현장 발굴조사 결과 주매장시설은 토광이며, 그 주위로는 6기의 토광과 2기의 석곽이 배치돼 있고, 그 속의 부장유물로 토기류와 철기류 등 70여 점을 확인했다.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삼고리 고분군에서 그동안 조사된 주매장시설은 석곽인 반면, 7호분의 주매장시설은 토광으로 이는 마한에서 가야로의 전환기에 축조되었다는 점이다.

더불어 토광의 부장유물 중 마한·백제계 광구호와 밀집과상문의 장경호, 고배 등 비교적 이른 시기의 가야토기가 함께 출토되고 있어 장수지역 가야고분 문화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7호분의 부장유물은 완주 상운리 나

지구 7·3호 목관묘의 단경소호, 고령 지산동 73호·74호분 주변 제6호묘의 유개호, 장수 노하리고분군 석곽묘의 대부장경호 등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7호분은 5세기 전반 경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삼고리고분군에서는 현재까지 석곽 45기, 토광 26기, 옹관 1기가 확인됐으며, 유물은 가야·백제 토기류와 철기류, 장신구류 등 500여 점이 발굴됐으며, 장수군은 삼고리고분군에서 조사한 역사성을 토대로 전라북도 기념물 지정신청을 완료하고, 2021년 하반기 전라북도 기념물 지정을 앞두고 있다.

장수군 군수는 “최고 지배자가 아닌 중간 관리자급의 무덤에서 이 정도의 유물이 확인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이번에 발굴된 삼고리 고분군 유적이 문화재 지정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코미디 연극 ‘수상한 집주인’ 공연

기본 좋은 바람이 가을의 정취를 짙게 하는 9월!! 군산예술의전당이 탄탄한 구성력과 독창적인 유티로 서울 대학로에서 사랑받는 리얼 코미디 연극 ‘수상한 집주인’ 공연을 오는 9월 25일 15시와 19시 소공연장 무대에 선보인다.

리얼 코미디 연극 ‘수상한 집주인’은 현대인의 삶을 둘러싼 모순과 아이러니를 그린 코미디 연극으로 현대인들의 고단한 일상, 생존을 위한 거짓말, 거짓말로 가득한 사회구조, 이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 등을 코미디의 해학적인 요소로 현대인의 지친 삶에 여유를 주는 치유를 선물하고자 한다.

이번 공연은 영화 ‘아이덴티티’, ‘잭 프로스트’의 마이클 쿠니의 작품을 원작으로 독창적인 유티와 숨 톨릴 트 없는 스피드한 전개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정리 해고당한 주인공 남자에게 우연히 걸려온 전화 한통을 시작으로 자

신의 거짓말 대상을 한명씩 죽이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오합지졸의 캐릭터들의 탄탄한 구성력으로 표현하는 코미디 연극이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풍자와 유티가 넘쳐나는 이번 작품을 통해 코로나 및 일상에 지친 심신에 힐링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 가시길 바라며, 공연 중 마스크 착용하기, 공연장 내 거리 유지하기 등 생활 속 방역 준수사항을 지켜 안전한 공연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철저한 공연장 방역과 객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하며 티켓예매는 23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 및 커피브라운을 통해 가능하다. 티켓금액은 R석 2만원 S석 1만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arts/)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